

©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in 1973

大學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崔 昌 均

(中央大學校 圖書館)

1. 머리말
2. 回 顧
 - 2.1. 特記하고 싶은 일들
 - 2.2. 統計로 본 1973
 - 2.3. 決算
3. 展 望
 - 3.1. 圖書館이 해야 할 일
 - 3.2. 當局에 바라는 所望
4. 맺음말

1. 머 리 말

大學과 그 圖書館은 아니라 圖書館은 教育의 次元에 서 보아야하며, 教育은 이른바 百年之大計로 다루어 야 함은 常識이다. 一年이란 短期的 狀況으로 評價하고 反省하기엔 너무 짧다. 지난 一年間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지지난해의 그 모습으로 보인다.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各自 나뉘어서 또는 公式會議에서 指摘되고 分析 提示한 山積한 課題들이 그대로 해를 넘기는 느낌이다. 어떤 角度에서 보면 或者가 말하듯이 大學圖書館은 어느 館種에 앞서 近代圖書館學概念을 導入하고 比較的 指導級 圖書館人에 의하여 領導되어 他的 準據 集團이었으면서도 지난 10年間 沈滯狀을 들어왔다고도 하고, 그래도 出發當時를 되돌아 보면 언제 이 만큼 왔는가 실계 發展했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 어느 立場이 옳고 그르고 할 것 없이 大學圖書館에 몸담아 10年을 지내면서 바라 본 圖書館은 大學當局이 圖書館에 갖는 役割期待 以上으로 努力해 왔고 成果를 올렸다고 보며, 오히려 圖書館이 利用者나 當局에 대하여 갖는 役割期待가 너무 長期間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 진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利用者의 役割期待를 滿足 시켜주기 위한 方法으로서의 施設, 資料, 職員, 奉仕에 관한 問題는 대두되며, 이 問題의 効果의 改善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大學當局, 圖書館, 利用자가 할 일 이 있다. 이제까지 發表된 大學圖書館에 관한 記事나

論文들이 그 表現方式은 달라도 여기에 歸着된다고 볼 때 結局 한말을 되풀이하는 結果가 된다. 더구나 筆者는 大學圖書館界의 이른바 指導級도 아니고 中間管理 層도 아니면서 이러한 論題를 맞고 보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따라서 書堂개 3年은 세번쯤 거렸으니 서당개 風月을 짓듯이 筆者의 見聞 테두리안에서 생각나는대로 지난 一年을 回顧해 보고, 所望을 말해 보고자 한다. 反復되고 常識的인 그리고 외람된 表現에 대하여 館界 先輩 同志의 鞭撻을 바란다.

2. 回 顧

2.1 特記하고 싶은 일들

A. 實驗大學의 實施

總復修學點 引下와 副專攻制를 骨子로 하는 實驗大學이 各大學에 指定되었다. 그 目的은 學生들의 自律 學習에 의한 幅넓은 教育에 있고, 결국 教育의 量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圖書館의 活用이 前提되는 것이다. 그러나 實驗大學 實施後에 各大學圖書館이 어떻게 對應했으며 어떠한 結果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報告된 바 없다. 筆者가 勤務하는 大學은 指定된 分野가 社會科學이기 때문에 所屬大學에 社會科學分館을 設置 하였으나 아직 圖書館을 통한 意圖的 教育이 實施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 實驗大學이 文字 그대로 實驗期에 있지만 結果의 分析에 相關없이 文教部가 이 計劃을 擴大할 豫定인데 이에 대하여 이렇다할 圖書館的인 論議가 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쉽다.

B. 教養課程에 圖書館學 講座

館界의 所望이었던 大學教養課程에서의 圖書館教育이 처음으로 慶熙大學校에서 實施되었다. 그것이 師範大學과 文理科學大學에 限定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今年度最高의 收穫이었다. 또한 弘益大學校가 定規科目은 아니어도 從來의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에서 發展한 方法을 採擇하였으며 圖書館案內 冊子도 文獻調査(論文作

成)領域까지 擴大하였다.

C. 國立大學校 圖書館長 및 司書長會議

年例의인 行事로서 꾸준히 繼續되고 있지만 항상 問題點으로 指摘되는 職制, 職務 및 時間外手當, 地方大學圖書館의 職員訓練, 外國學術雜誌購入用 庫券의 直接配定, 綜合目錄發刊 等의 問題를 이번에도 提起하였으나 實踐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創立만 해놓고 다시 모이지도 못한 全國私立大學校圖書館 協議會의 行方을 생각할 때 16次까지 끌어가며 共同努力을 했다는 自體로도 成攻의이라고 말할 수 있다.

D. 定刊物記事索引誌의 發刊

今年에 처음으로 着手하여 今年에 發刊한 것만은 아니지만 公州教育大學, 釜山大學校가 特定論文集의 學術論文索引을 出刊했고, 建國大學校와 淑明女子大學校가 自校刊行物記事索引誌를 作成出版하였으며, 延世大學校와 淑明女子大學校가 自館所藏索引誌를 續刊하고 있다. 大學圖書館들이 單行本 整理業務로부터 記事索引에 關心을 갖고 이러한 勞作들을 꺼내 놓는 일은 館界의 與件을 돌아볼 때 그 勞力과 誠意는 大端한 것이다. 그러나 限定收錄範圍를 갖거나 비슷한 收錄範圍를 가지고, 主題別累加索引이 아닌 이러한 類似索引誌를 各館이 따로 發刊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各館의 所藏綜合目錄을 發刊하는 일이 急先務이며, 索

引誌도 共同努力이 必要할 것 같다. 索引誌를 直接作成해 본 經驗이 있다면 이 作業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 大學圖書館에 관해 發表된 論文·記事

국회도서관보, 국립중앙도서관보(도서관), 도협월보 三個誌 9月號까지에 掲載된 것과 碩士學位論文은 다음과 같다.

- ① 羅成實, 大學敎養課程에 있어서의 圖書館敎育의 必要性에 關한 研究·延世大學校敎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73.
- ② 孫正彪, 藏書構成의 効率化를 위한 複本推定의 統計의 方法—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現況과 關聯하여. 국회도서관보 87 : 73, 1·2 pp. 9—14.
- ③ 孫正彪, 大學圖書館 藏書量의 最低基準에 關한 研究. 도서관 180 : 73, 5pp. 56—68.
- ④ 孫正彪, 大學圖書館 藏書構成의 効率化를 위한 最低豫算基準에 關한 研究. 국회도서관보 90 : 73, 6 pp. 36—48.
- ⑤ 李根鐵, 敎大圖書館 改善을 위한 小考. 도서관 176 : 73, 1 pp. 25—32.
- ⑥ 李根鐵, 敎育大學10年과 圖書館. 도협월보 14, 2 : 73, 2 pp. 2—5.
- ⑦ 任鍾淳, 圖書館法의 問題點—大學圖書館分野. 도

事項	區分	1972			1973			增	減
		大	初·專	計	大	初·專	計		
館	數	94	70	164	98	67	165	1	
奉仕對象者		204,257	42,241	246,498	276,813	115,399	392,212	145,714	
建物	獨立	44	13	57	
	建坪	50,220	6,43	56,650	53,503.51	8,779.92	62,283.43	5,633.43	
	座席	27,792	7,927	35,719	33,488	8,563	42,051	6,332	
職員	專門	352	57	409	388	52	440	31	
	非專	714	155	869	701	166	867	-2	
藏書	東書	3,376,917	367,625	3,744,542	3,465,065	430,488	3,895,553	151,011	
	西書	2,442,266	138,601	2,580,867	2,486,799	149,203	2,636,002	55,135	
	計	5,819,183	506,226	6,325,409	5,951,864	579,691	6,531,555	206,146	
	年增	429,045	85,729	514,774	290,631	100,155	390,786	-123,988	
	外雜新	14,132	422	14,554	15,638	500	16,138	1,584	
利用	者	4,536,059	848,501	5,384,560	5,604,512	932,181	6,536,693	1,152,133	
	館內冊	2,904,847	852,963	3,757,810	2,436,887	710,727	3,147,614	-610,196	
	館外冊	1,745,382	365,960	2,111,342	2,228,296	360,586	2,588,882	477,540	
豫算	資料費	463,341,054	56,847,070	520,188,124	508,737,389	76,839,341	585,576,730	65,388,606	
	人件費	143,596,625	16,920,510	160,517,135	156,095,118	17,029,500	173,124,618	12,607,483	
	其他	111,341,805	76,763,307	188,105,112	374,307,216	77,209,935	451,517,151	263,412,039	
	計	718,279,484	150,530,887	868,810,371	1,039,139,723	171,078,776	1,210,218,499	341,408,128	

表(1) 圖協, 「한국도서관통계」에 의한 對比表

- 협월보 14, 1 : 73, 1 pp. 12-16, 11.
- ⑧ 鄭鎮植, 大學圖書館 關覽機能 強化에 對한 小考. 도서관 183 : 73, 8·9 pp. 32-35.
- ⑨ 崔貞泰, 圖書館資料의 國際交換 現況(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도서관 183 : 73, 8·9 pp. 12-17.
- ⑩ 韓相完, 새해 大學圖書館界의 展望. 도서관 176 : 73, 1 pp. 16-19.
- ⑪ 玄圭燮, 圖書館의 創造力. 도서관 176 : 73, 1 pp. 11-15, 10(p.15參照)

2.2 統計로 본 1973

圖協의 한국도서관통계(表1)에 의해 몇가지 重要事項만 分析해 보고자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各圖書館이 어느만큼 正確하고 誠實하게 統計를 提出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統計의 한가지 分明한 事實은 數(例: 藏書數)가 誇張되었으면 되었지 줄인 것이 아니라는 事實과 여기에 견줄 資料가 없다는 事實이다.

A. 職 員

專門職이 31名 增加되고 非專門職이 2名 減少된 것은 多幸스러운나 奉仕對象者數는 145,714名이나 增加하여 오히려 1人當 奉仕對象者數는 엄청나게 增加하였다. 即 71, 72兩年の 200대에서 300대로 增加하였으며, 專門職 1人當 奉仕對象者數는 500대에서 891名으로 엄청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職員數는 一校當 8名 未滿으로서 專門職은 1校當 3名도 못되는 形便이다.

B. 藏 書

(1) 單行本: 東書 151,011冊, 西書 55,135冊으로 總計 206,146冊이 增加하였는데 이는 一校當 平均 1,250冊 未滿밖에 增加하지 못하였으며 一校當 平均 保有藏書는 不過 39,585冊밖에 되지 않는데 10萬冊이 넘는 몇개의 大圖書館을 빼고나면 그밖의 藏書現況은 想像하기 어렵지 않다. 이 藏書量은 그 質을 不問에 부치고라도 奉仕對象者 1人當 16冊을 겨우 넘는 것으로 法定基準에도 훨씬 未達하고 있다.

(2) 外國雜誌: 總 16,138種으로서 지난해보다 1,584種이 增加하였다. 이는 一校當 10種 未滿 增加한 것이며, 一校 平均保有 98種未滿으로 볼 때 相當한 增加라고 말할 수 있다.

C. 利 用

利用者 統計 特別 館內利用(貸出)統計는 正確하기 어렵다. 統計에 의하면 館內利用冊數는 前年에 비해 610,196冊이 줄었는데 統計上의 착오로 보고 싶다. 比較的 根據있는 館外貸出은 477,540冊이 增加하여 一校當 平均 2,894冊以上 增加된 것이나 奉仕對象者 增加에 比較도 할 수 없으며, 總利用 2,588,882冊도 奉仕對象者 1人當 6.6冊밖에 되지 않는다. 年間 利用總計가 總藏書量의 1/2도 못되는 것이다.

D. 豫 算

豫算項目中 가장 核心이 되는 資料購入費는 65,388,606원이 增加하여 一校當 平均 396,294원以上 增額되긴 했으나 資料購入費總額은 奉仕對象者 1人當 1,493원을 겨우 넘는다. 이 金額을 가지고 藏書가 206,146冊 增加하였다면 1冊 增加하는 데 平均 2,355원 程度가 必要하니 寄贈圖書를 감안한다면 一冊當 購入費가 얼마쯤 되리라는 짐작이 可能하며 1人當 1冊 增加가 어려울을 알 수 있다. 더구나 年間總豫算이 增加했다고는 하나 奉仕對象者 1人當 3,085원 程度다. 이것이 純粹한 資料購入費라 하여도 너무 적은 金額이다.

2.3 決算—特定大學圖書館이 갖는 보이지 않는 責任

위에서 走馬看山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간 大學圖書館界의 所望이었던 資料購入費의 引上, 職員待遇, 職制, 相互協力, 圖書館教育의 教養課程化, 教授方法의 改善에 따른 圖書館利用의 生活化(圖書館을 通한 教育)…등에서 果然 무엇이 어느만큼 成就되었는가 일일이 比較分析하지 않아도 自明해졌지만 서울所在의 大學中 지난해 두드러지게 움직임을 보여준 大學과 關聯하여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大學圖書館이 他館種의 準據集團으로서 先導的 役割을 해왔다고 하지만 實際 그 準據와 先導는 延世大學校에 큰 比重이 있다. 어느觀點에선 產室이었는데 이제는 主客이 轉倒된 느낌이며 他大學에 보이지 않는 阻害의 結果까지를 招來하고 있다. 그러한 實例는 筆者의 勤務處에서 司書職待遇改善을 推進할 때 延·高大가 準據集團으로 登場되어 좌절되었다. 또한 다른 大學에서도 이와 비슷한 事例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奉仕對象者數가 가장 적거나, 大學校로서의 歷史가 짧은 淑明女大, 西江大學校가 職制를 擴充하고 弘益大學校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延世大學校도 그간 司書의 教授職待遇를 위해 努力한 것으로 듣고 있으며 오랫동안 中間管理層으로 대우하던 各係責任者를 課長으로 昇進시키긴 했으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大學圖書館界의 模範이 되어야할 位置에 있는 高大, 梨大등과 함께 館界의 當面한 問題解決에 있어서(館으로서는 勿論 努力했겠지만) 先導的 役割은 커녕 結果의으로 阻害要因이 되고 있다는 事實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圖書館教育의 教養課程化를 實施한 慶熙大學校와 延·高대에 앞서 先導的 役割을 하여준 大學들에 대하여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3. 展 望

3.1 圖書館이 해야할 일

A. 高等教育改革에 따른 役割變化

앞에言及한 바와 같이 實驗大學이 實驗期에 있고 最近 數年間 大學教育 改革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筆者가 勤務하는 大學은 明年부터 醫·藥·法大를 除外한 全大學이 實驗大學化가 確定되었다. 實驗大學이나 大學教育改革論의 共通點은 變化하는 時代의 要請에 適應하는 効果的인 教育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基礎教育(語學·自律學習能力·教養)의 徹底로부터 發展하는 社會에 對應하는 福넓은 教育이며, 그것은 從來의 講義方式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圖書館의 役割은 自明해진다. 이것은 役割變化라기 보다는 本來의 目的이다. 그것의 性要性이 目前에 닥아왔고 實驗大學의 成敗를 左右 할 만큼 役割期待가 커진 것이다. 大學當局이나 教授들이 協調없이 成果를 얻을 수 없는 點도 있지만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能動的인 態勢가 갖추어져야 될 것이다.

B. 大學司書의 資質向上

司書의 處遇改善에 앞서 大學圖書館의 司書는 教授와 같은 資格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學院課程을 履修하여 主張의 根據를 삼고 不斷히 研究하며 創意力을 길러서 利用者나 當局으로부터 信任을 받아야 될 것이다.

C. 共同努力

問題의 解決이나 作業(索引·綜合目錄·圖書選定 등)에 있어서 共同努力은 絕對必要條件이다. 지금 形便은 各館이 孤軍奮鬪하고 있다. 그런 意味에서 國立大學校 圖書館長 및 司書長會議나 全國私立大學圖書館協議會 醫學圖書館協議會의 共同努力이 活潑해져야 겠다. 圖書館協會에 對하여도 參與에 의한 建設의 批判을 通하여 館界의 總和를 이루어 館界의 問題解決 特히 司書의 權益, 共同作業(特히 定刊物記事索引의 重復)의 試圖를 해야 겠다.

3.2 當局(文教部·大學·教授)에 바라는 所望

A. 圖書館의 再認識

圖書館을, 具色을 갖추기 위한 附屬機關으로 생각하여, 人事, 財政面에서 庶子取扱을 하지 말고, 大學의 모든 教育計劃에 參與시키며, 圖書館을 통한 教育이 實施되게 하여 實驗大學이 所期하는 目的達成의 지름길을 삼아주었으면 한다. 모든 問題는 認識不足으로부터 온다.

B. 圖書館教育의 教養課程化

全國圖書人의 이름으로 建設한 바 있고 그 必要性에 대하여는 再論할 餘地도 없이 大學圖書館의 發展과 大學教育改革의 열쇠다. 아는 바와 같이 知識情報의 洪水

와 發展의 加速現象은 人間의 平生教育을 要求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느 分野에 있어서나 能動的으로 適應할 수 있는 平生自律學習의 基礎로서의 圖書館教育은 語學 및 教養과 더불어 教養教育의 核心이다. 圖書館教育은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 即 學術研究方法의 教育이다. 이 教育이 部分的으로가 아니라 全體大學의 教養科目으로 設定되어주기를 거듭 要望한다.

C. 司書職員의 專門化

大學은 어느 社會보다 專門知識을 要求하는 分野이다. 大學의 司書職은 講壇에 서지않는 教授와 같으며, 그 役割은 더욱 廣範圍하여 教授職 몇배의 努力과 研究가 必要하다. 이러한 司書職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處遇는 勿論 專門教育의 길을 열어 주어야 겠다. 獎學金 또는 本校에 無料로 受講할 수 있는 特惠가 주어져야 하며, 學位나 研究·努力의 結果가 報酬에 直接反影되게 하는 誘因을 주어야 한다.

4. 맺 음 말

해마다 行事나 論述을 하여 大學圖書館의 問題와 그 解決方法이 論議되어 왔고 또 繼續되면서 다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個人도 한 해를 보내면서 自己反省을 하며 새해의 設計를 꾸미나 그것이 너무 자주 좌절될 때 허탈에 빠진다. 그러나 이 虛脫을 이기는 努力과 끈기위에 새로운 來日이 있다. 現實에 滿足하고 現狀을 維持하는 것도 감내하기 어려운 지금의 館界實情을 內容있는 「共同努力」에 의해 하나하나 打開해 나가며 波狀前進의 姿勢로 새해를 맞자.

ALA

目錄카드 排列規則

李 丙 洙 譯

값 2,000원

連絡處：圖協 事務局

電話 · (22) 4864 · 5613